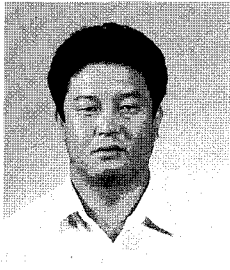


유통개선에 최선의 노력 기울여야..



김 선 응

- 봉림농장 대표
- 전 김포채란분회장

때 들쭉했던 희망찬 2000년, 새천년, 21세기 등등 여러 낱말들을 뒤로 한 채 이 시간 우리 양계산업은 소비 위축 및 과잉 생산으로 인한 엄청난 불황을 겪고 있다.

21세기에는 농축산물의 수출·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채란업의 장기 불황은 예고된 것과 같이 지속되리라고 생각된다. 특히 각종 정책자금의 지원으로 시설의 현대화는 이루어졌지만 유통 질서의 문란으로 인하여 우리 업계는 더욱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정책자금을 이제는 유통 및 경영 능력 위주의 생산적 지원으로 전환하여 더 이상 귀중한 재원이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국내 채란양계시설은 이미 포화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할 것이다.

특히 채란업계에서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것은 유통상황이다.

대량생산체제하에서 유통시설이 빈약하여 생산을 해 놓고도 제값을 제대로 못받는 현실에 처해 있다. 생산하여 단순히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지난 세월은 누가 먼저 수요처를 찾아내느냐가 최대 관건이었으나, 21세기에는 대량유통의 길을 여는 길이다.

이러한 어려운 유통 상황을 탈피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계란 공판장과 난가공공장, 더욱 더 많은 집하장을 설치 운영하여 생산자는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것들이 해결된다면 생산성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 조속히 선진국 수준의 생산 원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의 공동 노력이 절실이 요구되는 때이다.

비록 어려운 난제가 산적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양계 산업의 생존과 성장의 의지를 포기할 수 없는 노릇이다.

양계산업의 흐름을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

이제 우리는 사육량의 10%를 줄여 과잉생산을 막아야 할 것이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국적으로 난가현실화가 실시되고 있다. 과거의 관습을 이어 가기에 너무나 거품이 심했다. 그동안 우리는 상인들에 의해 우리의 권리를 빼앗기며 생산을 해왔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는 우리 함께 뭉쳐야 할 것이다.

어려운때일수록 또 다른 기회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삼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양계**